

# 지역 콘텐츠산업 인재 수도권 이탈 심화

### 종사자 수도권 75.6% 쏠려...지방은 '고사 위기' **최경환 "융합교육원 설립 등 인재양성 나서야"**

전국 콘텐츠산업의 매출액과 사업체 수, 종사자수 상당수가 수도권 몰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콘텐츠 융합교육원 설립 등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사진)은 18일 열린 국회 문광위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콘텐츠 산업은 2016년 매출액이 105조원을 넘어 연평균 7.5%로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액의 87%, 사업체수 56%, 종

사자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수도권 콘텐츠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91조7천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비수도권지역 기업의 매출액은 13조6천300억원으로 13%에 불과했다.

콘텐츠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도 또한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다.



수도권의 콘텐츠 산업 사업체수는 ▲2014년 5만9천184개 ▲2015년 5만9천188개 ▲2016년 6만140개로 매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콘텐츠 사업체수는 ▲2014년 4만6천257개 ▲2015년 4만5천825개 ▲2016년 4만5천651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사자수도 2016년 현재 수도권 기업에는 45만427명(75.6%), 비수도권 기업에는 14만5천79명(24.4%)이 근무하고 있어 격차가 큰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역의 콘텐츠기업이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

문인력 부족을 꼽고, 지역기업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좋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지역콘텐츠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현재 콘텐츠진흥원이 지역별 거점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콘텐츠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콘텐츠 융합교육원' 설립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인재는 물론 미래 선도형 융복합 인재, 청소년 잠재인력 육성 등 지역 인재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jskim@kjdaily.com

## 광주 지역아동센터 11곳 시설 리모델링

광주시는 18일 "세방그룹(회장 이상웅)이 지역 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후원해온 '희망스위치온' 100호점 환관식이 이날 북구 에덴지역아동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희망스위치온'은 세방그룹이 지역아동센터를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올해 광주지역 아동센터 11곳에 2억2천만원이 지원됐다. 세방그룹은 2008년부터 전국 107개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 도배, 장판, 주방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17억여 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광주에 11곳을 지원해 100호점이 탄생했다.

정종재 행정부시장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희망스위치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질높은 돌봄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디이기자 ssdai@kjdaily.com



**배움의 꿈 '평생학습' 한마당** 배움의 학습현장을 함께 공유하고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제4회 남구평생학습축제'가 18일 오전 봉선동 유안근근린관에서 열려 시민들이 손뜨개질 체험을 하고 있다. '남구애자랑,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평생학습기관과 학습동아리, 수강생,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김디이기자 kki@kjdaily.com

# '비리유치원' 2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

유은혜 "국민께 송구...폐원·집단휴업 묵과 않을 것"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

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 '광주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선포

광주시는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18일 오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 원탁회의, 공동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민 원탁회의에서는 광주 SDGs 2030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슬로건 제작과 ▲물순환 ▲에너지전환 ▲녹색경제 ▲자원순환 ▲도시숲 ▲교통환경 ▲복지 ▲로컬푸드 ▲녹색건강 등 주제별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선포식에는 이용성 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미정·김광란·나현 시의원, 김병

완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시민사회단체·기업·행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SDGs 2030' 17개 목표와 66개 세부목표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SDGs 2030'은 2015년 9월 채택된 UN의 'SDGs 2030'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립한 광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올해 1월부터 시민사회, 기업, 행정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과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히 광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복지, 여성, 건강, 교육, 에너지, 일자리, 공동체, 환경,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권,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를 담았다. /김디이기자 ssdai@kjdaily.com

## 광주시, 제4회 중국문화주간 행사 내일 개최

광주시는 대중국 교류 활성화와 우호 환경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제4회 중국 문화주간' 행사를 5·18 민주광장 등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4회 짝을 맞는 이번 문화주간에는 광주 시민과 광주 거주 중국인, 중국 유학생, 중국 기업인 등이 참여하며 북경대, 칭화대, 절강대 등 중국 8개 대학 학보사 기자단 30명이 문화주간 행사, 광주비엔날레, 광주지역 명소를 취재해 각 대학 학보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인 20일에는 오전 9시부터 '2018 중국요리페스티벌'이 열린다. 요리 라이브경연 24개팀, 조각전시경연 20개팀 등 국내외 44개팀이 실력을 겨룬다. 관람객 체험행사로 카빙쇼, 전문가육 콘서트, 전문 요리 시연 및 시식 체험 행사도 준비했다.

이날 오전에는 중국 회심환경과학기술포럼과 광주시 소재 (주)국토정보기술단 등 건설, 환경, 의료, 물류 및 유통분야 한·중 기업CEO 30명이 '한·중 기업가 간 상호협력 및 교류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광주·중국 기업 간 지속 교류 및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선포식은 오후 4시에 열린다.

이와 함께 문화주간 기간 중국문화체험, 한·중 전통문화공연, 중국 영화 및 사진 특별전, 중국언어문화 경진대회, 중국영화 특별전, 중국 상식 퀴즈대회(24일), 중국어 말하기대회(26일), 한·중 노래대회(26일) 등 중국언어문화 경진대회가 펼쳐지며, 중국인이 바라보는 '내가 본 광주'와 중국의 음식, 자연, 인물 등 사진으로 보는 중국 사진전(24~26일)도 진행된다. /김디이기자 ssdai@kjdaily.com

## 쌀 맥주 제조용 키트 통해 전남 쌀 소비 확산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개발한 쌀 수제맥주 제조용 키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18일 전남도농기원에 따르면 이번 수제맥주 제조용 키트는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맥주의 주 원료인 보리맥아 60%를 쌀로 대체한 에일 타입 수제맥주 키트로 발효조, 당화액, 펄팅병, 홉, 효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쌀 고 함량 맥주 제조 방법'으로 현재 특허출원 중이다.

전남농기원은 쌀 맥주 제조용 키트의 실용화를 위해 보성과 해남의 농촌 교육

농장과 연계해 일반소비자 45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수제맥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개 평가분야 설문조사 결과, 연령대는 20~60대로 대상자 91.1%가 맥주 제조경험이 없었지만 5점 만점에 상품성·제품성·관리성·혁신성이 4.5점, 가격과 만족도는 3.7점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함께 참여한 농촌 교육농장중에서도 자체 운영프로그램에 수제맥주 키트 체험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재만기자 icm@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통장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없음 ◀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부동산, 전세금,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분실공고**

- 종 류 : 분양계약서
- 발 행 인 : 양우건설
- 분양물건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지서로 167 양우내안에리비시 211동 1202호
- 분 실 일 : 2018년 10월 15일
- 성 명 : 박혜영 ○ 연락처 : 010-9977-8864

2018년 10월 19일  
공고인 박혜영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영업직** 신입·경력직 모집

**채권추심직** 경력직 모집

\*업계 최고대우함

선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T/M직원 모집 ● 남·여 직원모집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062-228-0990~1/HP 010-5679-0990  
백운동·조대방면으로 남광주농협 인근신협3층

